

공채 합격자가 법무부 고위직 가족.... 한국소년보호협회 이해충돌 논란 보도 관련

- 2026. 8. 12. 경기일보 보도 관련 설명 -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안윤근)는 '26년 8월 12일 경기일보의 “공채 합격자가 법무부 고위직 가족.... 한국소년보호협회 이해충돌 논란”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해당 직원의 채용은 협회 인사·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협회 인사·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 역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용은 별도의 절차나 특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가족채용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어 법이 규정한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앞으로도 직원 채용 전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책임자	팀 장	김동하 (02-2110-3912)
		담당자	사무관	정경아 (02-2110-3917)
	소년보호협회	책임자	사무총장	이성철 (070-7455-6105)
		담당자	행정지원팀장	장철승 (070-7455-6101)